

목재산업을 재정비하여 국산재시대를 맞이하자



조 재 명
산림청 임업연구원 원장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산림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21세기 새로운 산림자원국이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199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림 비율이 31%에서 1998년에는 35%, 2040년에는 50%로 늘어나서, 우리산림은 경제적인 목재 생산기지와 지구환경보전기지로 될 것이고 나아가 현재 13%에 불과한 원목 자급율이 2040년에는 60%로 늘어나 우리임업인의 꿈인 국산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환경보전문제로 열대재의 생산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고, 또한 온·한대림까지도 개발제한압력이 더해가고 있어 국산재시대는 더 앞당겨져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목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앞으로 원목공급량이 감소되는 지역은 대경열대활엽수재를 공급하는 동남아시아지역과 대경침엽수재를 공급하는 북미지역이 될 것이고, 원목공급량이 증가되는 지역은 소·중경침엽수재를 공급하는 남반구지역과 시베리아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목수입은 주로 남반구와 시베리아산 소·중경침엽수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조림수종이 대부분 침엽수이므로 21세기 국산재시대의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소·중경침엽수재 주도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경열대활엽수재 주도형의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지금부터 소·중경침엽수재 주도형의 목재산업으로 재정비 전환되어 갈 것이고, 수입 소·중경침엽수재는 단기적으로는 국산재와 보완적인 관계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적인 관계로 될 것이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60년대초 초기성장기에는 주로 우량 대경열대재를 수입하여 합판을 가공수출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산업으로 출발하여 60년대말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5%를 점유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주역산업이기도 하였거니와 수출원자재로 도입된 수출가공부적재, 가공폐재, 수출불합격제품의 내수이용은 6, 70년대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절대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은 수출경쟁력을 잃어 내수산업으로 전환되었고 국제경쟁우위이론에 따라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여 목재산업의 기간업종인 제재는 국산자급율이 72%, 합판은 44%, 보드는 56%로 내수산업으로서의 바탕마저 무너져 가고 있다. 특히 UR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놓여진 우리 목재산업으로서의 더욱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노력여하에 따라 과거 6, 7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국가경제에 또다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목재산업이 없는 21세기 국산재 시대는 있을수 없으므로 21세기 국산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원목 확보, 형질 및 물류비용 등 국산재 공급상의 기술적 경제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국산재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와 산업체의 경영전략은

첫째, 원자재의 침엽수가공체계의 전환이다. 현재의 대경열대활엽수재 가공설비를 소·중경침엽수재 가공설비로 교체하여 우선 수입침엽수재를 가공하는 과도기적 설비체계를 거쳐 앞으로 비슷한 가공특성을 지닌 국산재 가공체계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다. 대

표적인 예로 열대재합판라인을 침엽수합판라인으로 교체하여 수입침엽수재로 원자재를 전환시켜 열대재 소비를 줄이고 합판산업의 기반을 유지시키면서 앞으로 국산재 원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경재 수요산업인 보드산업 등의 육성이다. 즉 국산재를 대량 활용할 수 있는 보드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산간벌재를 보드용원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보드의 품질을 높이고 간벌을 촉진하여 21세기 국산재시대의 양질대경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재폐재를 사용케 함으로써 제재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혀 제재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켜 제재산업을 육성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한다.

셋째, 내륙국산목재 복합가공산업화이다. 국산재가 생산 집하되는 내륙에 목재복합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산재원목의 물류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외재와의 경쟁력을 제고케 하고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

넷째, 목재도매시장의 육성이다. 국산재 시대에 건축재, 가구재 등 다종의 목재가 다양한 용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원목유통과정에서 정보제공과 분산기능을 제고시켜 도매시장 운영의 자생력을 갖추게 한다.

다섯째, 국산특용수재를 가공하는 농산촌형 목공예산업의 진흥이다. 국산활엽수 천연림보육사업으로 육성되는 특용수재를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공예품으로 가공하는 공예산업을 활성화하여 특용수종의 수익성 제고와 농산촌의 소득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